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 25/34℃ 목포 ☼ 25/32℃ 여수 ☼ 25/30℃
단기 4343년 (음력 7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57호 1판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 광주도시공사 또 빚낼 판

## 4000억 부채 불구 진곡산단 조성사업 떠맡아

### 회사채 3000억 발행 자금조달…市재정도 악화 우려

지역 내 민간건설업체의 '몰락' 속에 광주시의 각종 사업을 광주시도시공사가 떠맡으면서 부채율이 급증하는 등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애초 민간이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을 광주시도시공사가 추진하기 위해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장기불황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광주시도시공사는 물론 광주시까지도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9일 "광산구 진곡·오산·고룡·하남동 일원 191만1000㎡ 부지에 들어설 진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광주시도시공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진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3047억원의 예산을 조달해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주체를 정하지 못해 공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진곡산업단지가 연구개발(R&D)특구에 포함된데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클린디젤 자동차 전용단지가 들어설 예정에 있어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정여건상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광주시도시공사가 주체가 돼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광주시도시공사와 협의중이다. 오는 2011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진곡산업단지는 광주시도시공사가 맡더라도 2014년 말이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미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콜센터 건립, 혁신도시조성사업 등을 위해 자본금 2400억원을 넘어선 4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다시 진곡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3047억원을 회사채로 조달할 경우 부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광주시도시공사는 이미 조성이 완료돼 분양중인 평동산업단지 조성비 2000억원도 광주시로부터 2014년까지 나누어 받기로 한데다, 총 3900억원이 투자되는 혁신도시 역시 분양이 늦어지면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진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을 지 여부는 현재 협의중이며, 지역 건설 불경기나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분양대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회사채를 갚아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금 여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입설명회 집중** 19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11학년도 대입전형분석 및 입학사정관제'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진학 담당 교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2014 수능 두번 치른다

## 과목도 절반으로…제2외국어·한문 제외 검토

### 10월말 확정 발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응시과목 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언어(국어)·수리(수학)·외국어(영어) 영역은 난이도에 따라 각각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수능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기사 13면〉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수능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출제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수능이 수험생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로 대입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개편안을 연구해 왔다.

연구진이 제안한 개편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 수능이 복수시행 체제로 전환돼 응시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수년간 학습한 내용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해 진로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1월에 보름(15일) 간격으로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응시영역은 현재의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이름이 바뀌고 난이도에 따라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으로 구분된다.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의 난이도이고,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가 좁고 훨씬 쉬운 수준이다.

수험생은 자신의 학력수준과 진학할 대학의 계열 등에 따라 A형과 B형 중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탐구영역은 유사 분야끼리 시험과목이 통합되고 응시과목수도 줄어든다.

사회탐구를 예로 들면 지금은 윤리·국사·한국지리·경제지리·세계지리·한국근현대사·세계사·법과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과목수가 11개나 되고 이중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으나, 지리·일반사회·한국사·세계사·경제·윤리 등 6개 과목으로 통합해 이 중 1개를 선택·응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대입 반영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읽기 중심의 수능으로는 실질적인 제2외국어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수능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입 선진회 연구회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교과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권역별 공청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10월말 정부안을 확정·발표한다. /연합뉴스

# 광주문진위 폐지…문화재단 신설

## 市 내달 조례안 마련…내년 1월 공식 출범

광주 지역 문화 정책의 큰그림을 그리고 '씽크탱크' 역할을 할 (재)광주문화예술재단이 2011년 1월 공식 출범한다. 〈관련기사 3면〉

19일 광주시는 기존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연예술재단을 폐지하고 두 단체의 기능을 통합한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강운태 시장 취임과 함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재단 출범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안에 따르면 재단은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위탁운영하게 되며 당초 인수위 안(案)에서 논의됐던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광주시향 등 광주시립예술단체까지 통합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문화재단은 정책기획실, 문화사업팀 등 시설관리팀 등 1실 5개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시가 검토했던 문화관광공사 설립은 유보하는 대신 재단 내에서 기능을 흡수할 조직을 따로 꾸리기로 했다.

또 재단의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광주시장이 맡고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재단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타시도 사례 등을 수집, 문화재단 설립준비단에서 적정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단은 또 현재 50억원에 불과한 기금을 500억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에서 매년 일정액을 출연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께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문화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관 및 이사진 구성, 창립총회 등 재단 출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수박먹기 힘드네

### 2주새 가격 66% 폭등

수박 가격이 치솟고 있다.

광주 신세계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초 kg당 1200원에 판매되던 수박이 2주 사이 66%나 올라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1만5000원에 판매되던 10kg짜리 수박도 2만4000원으로 2주 사이 60%(9000원)나 급등했다.

홈플러스에서도 이달 들어 수박이 kg당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수박 한 통이 6~7kg 정도라고 치면 1만5000~1만7500원 수준이다. 지난 6~7월 kg당 1600원 하던 것에 비해 56% 뛰었다.

수박값이 오른 것은 수급 불균형때문이다. 수박은 보통 8월이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졌지만 올해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전북 고창 등 수박 주산지가 태풍피해로 30% 이상 침수되면서 공급이 크게 줄어 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은미기자 emlee@